

브룩스, 너만 믿는다... KIA 개막전 선발 낙점



키움전 출격 마지막 리허설... 6이닝 5K 2실점 호투
스트라이크 비율 75%·위기관리 뛰어났다... 빈타에 1-3 패배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브룩스(사진)가 개막 리허설을 6이닝 2실점으로 마무리했다. 브룩스는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 출격해 개막전 마지막 점점을 마쳤다.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는 등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6이닝 6피

안타 2사사구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1회초 브룩스가 선두타자 이용규에게 스트레잇 볼넷을 내줬지만, 프레이타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은 뒤 이정후를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했다. 그리고 박병호의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1회를 넘겼다. 브룩스는 2회초 선두타자 서건창을 2루 땅볼로 잡아냈지만, 김수환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다. 이어 김혜성에게 좌측 2루타를 내준 브룩스는 박동원과의 승부에서 1루수 옆 빠지는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송우현의 내야안타까지 연속 3안타를 허용한

브룩스는 이용규와의 승부에서 5-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3회에는 야수들의 실수 연발 속 브룩스가 위기 관리 능력을 점검받았다. 1사에서 1루수 터커와 3루수 류지혁이 연달아 포구 실책을 범하면서 주자들이 나왔다. 하지만 브룩스는 서건창과 김수환을 연달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에는 2사에서 송우현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뒤 이용규의 우익수 플라이로 이닝을 정리했다. 5회에는 자신의 실수로 주자를 내보냈다. 브룩스가 선두타자 프레이타스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았지만 1루에 악송구했다. 하지만 2루까지 진투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정후의 유격수 땅볼 때 선행 주자를 잡아냈고 박병호 삼진, 서건창

1루 땅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선두타자 김수환을 좌전안타로 내보낸 6회초, 김혜성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8구 승부 끝에 이지영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면서 1사 1·2루. 송우현을 유격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투아웃은 됐지만 투구수가 85개에 이르렀다. 경기 전 윌리엄스 감독이 85-90구를 예고했던 만큼 정명원 투수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상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투수 교체 없이 브룩스가 이용규와의 승부에 나섰다. 초구에 투수 앞 땅볼을 만들면서 6이닝을 책임지고 물러났다. 86개의 공 중 65개를 스트라이크존에 넣었고, 직구 최고 구속은 150km를 기록했다. 평균속은 146km. 브룩스는 커브(5개·131km), 슬라이더(24개·142km), 체인지업(19개·138km), 투심(24개·

149km)도 구사했다. 최종 리허설을 끝낸 브룩스는 예상대로 2021 시즌 첫 경기를 책임질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28일 브룩스의 개막전 선발 기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막전과 라인업이 딱 맞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준비되는 기간을 보면 딱 맞는 날이다"고 웃으며 예뻐라 답을 했다. 한편 브룩스와 키움 요키시의 맞대결로 눈길을 끈 이날 경기는 1-3 KIA의 패배로 끝났다. 1회말 시작과 함께 최원준이 좌측 2루타를 때린 뒤 김선빈의 땅볼로 3루까지 향했다. 이어 터커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오면서 선취점은 만들었지만 이날 경기의 첫 득점이자 마지막 득점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불펜 남은 한자리, 장민기냐 김유신이나

윌리엄스 감독 "두 선수 중 결정... 마무리, 상황따라 유동적 가동"

KIA 윌리엄스 감독이 시범경기 세 경기에서 불펜 남은 조각을 찾는다. KIA의 시즌 준비에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삼성과의 시범경기 개막전을 비로 치르지 못했던 KIA는 27일에도 비로 키움과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예년보다 천천히 실전을 준비했던 KIA 입장에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28일 키움과의 경기에 앞서 윌리엄스 감독은 "(우천 취소 여파로) 운영에 변화가 좀 있다. 불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데, 다음 경기에 맞춰서 어떤 어느 정도 불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불펜에서 찾는 답은 필승조 1명과 왼손 불펜 자원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후반에 던져줄 수 있는 선수 한 1명 정도를 더 찾고 있다. 어느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왼손 불펜 자원이 가장 큰 물음표인 것 같다. 두 명의 좌완 불펜을 운용하고 싶은 게 바람직하다.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KIA의 유일하다시피 했던 좌완 이준영과 함께 역할을 해 줄 또 한 사람으로는 신인 장민기와 예비역 김유신이 후보다.

윌리엄스 감독은 "장민기와 함께 김유신을 보고 있다. 김유신은 일단 선발로 준비하고 있고 어깨와 몸 상태는 선발로 던질 수 있지만, 불펜에서 길게 던질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고 커맨드가 좋기 때문에 좌타자에 맞춰 원포인트도 가능하다"며 "이 두 선수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최종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유신은 브룩스에 이어 7회 등판해 2이닝을 소화했다. 7회 1사에서 이정후에게 우월 솔로포를 맞은 김유신은 중전안타와 몸에 맞는 볼로 추가 실점 위기에 몰렸다. 포수 김민식이 1루 견제로 아웃카운트를 보태준 뒤 2루수 플라이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더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종료했다. 헛스윙 삼진으로 8회를 연 김유신은 이지영과



장민기



김유신

송우현을 각각 3루 땅볼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2이닝 2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마무리는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며칠 전 마무리 후보로 언급

한 김재열에 대한 질문을 받아 "김재열이 불펜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적이다. 정확히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상대 매치업에 따라서 7회를 어떻게 갖 것인가 등을 신중하게 보고 운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또 새역사

토론토 개막전 선발...한국인 첫 3년 연속 ML 개막전 등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이 한국 선수 최초로 3년 연속 개막전 마운드에 선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27일 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시범경기를 마친 뒤 화상 인터뷰를 통해 다음 달 2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2019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토론토로 이적한 지난해에는 탭파베이 레이스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3실점으로 다소 부진했다. MLB 개막전에 3년 연속 선발 등판하는 한국 선수는 류현진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박찬호(2001-2002년)가 2년 연속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 적이 있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양키스를 상대로 두 차례 선

발 등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주 세일런필드에서 열린 양키스와 시즌 첫 경기에서 5이닝 동안 3개의 홈런을 포함해 5피안타 5실점(5사책점)으로 부진했다. 두 번째 경기였던 9월 25일 홈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개막전은 어디에서 하든 항상 기분 좋다. 흥분된다"며 "선수라면 다들 비슷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맞대결 상대는 MLB 최고 투수로 꼽히는 게릿 콜이다. 콜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뛰던 2019년 20승 5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한 뒤 자유계약선수(FA)로 양키스에 입단한 최고의 투수다. 60경기 단축 시즌으로 치른 지난해엔 7승 3패 평균자책점 2.84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양현종, 3대 1 서바이벌 게임

텍사스 현지 언론, 개막전 로스터 따른 시나리오 전망

꿈을 좇은 왼손 투수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은 미국프로야구(MLB) 정규리그 개막전 '26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양현종이 '3대 1'의 경쟁을 풀어야 버리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예상이 나왔다. 댈러스 모닝 뉴스의 에번 그랜트 기사는 텍사스 구단의 개막전 로스터 구성에 따라 양현종의 버리기 승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야수 12명, 투수 14명으로 개막전 로스터를 구성한다면 양현종은 헌터 우드, 루이스 오티스와 투수 엔트리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셋 모두 초창 선수 신분으로 텍사스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이다. 양현종을 뺀 둘은 오른손 투수다. 오티스는 3경기에서 1홀드, 평균자책점 3.38, 우드는 10경기에서 2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3.60을 수확했다. 양현종은 선발 1경기를 포함해 4경기에서 1세이브,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멀티 이닝(2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면 양현종이 비교 우위에 있지만, 시범경기 성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투수 13명, 야수 13명으로 개막전 로스터를 구성한다면 양현종이 버리기를 밟을 가능성은 사라진다. 역시 초창 선수인 내야수 찰리 클버슨과 외야수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13번째 야수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그랜트 기사는 내다봤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할 수 있는 텍사스의 40인 로스터 중 39명이 사실상 채워진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는 경쟁 중인 투수 3명과 야수 2명 등 5명 중 한 명이 차지한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31일 마지막 시범경기까지 지켜보고 개막전 로스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버리거로 승격되면 연봉 130만 달러와 인센티브 55만 달러를 합쳐 최대 185만 달러를 받는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연봉이 다른 계약)을 했다. /연합뉴스